

출마의 변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정 후보로 출마한 17학번 허수보, 부후보로 출마한 14학번 강윤석입니다. 본교에 입학한 이후로 줄곧 자치단체 활동에 참여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 봤습니다. 그 속에서, 빠른 의사결정보다는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 속에서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성이 갖는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목표로 하는 길이 멀지라도 방향을 함께 하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협력의 힘에 대해서도 체감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공존하며 존중될 수 있는 캠퍼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부터 사소한 즐거움까지 존재하는 캠퍼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학교로 발전하는 캠퍼스. 이와 같은 캠퍼스로 가꾸어 나가는 데에 저희 Fruits가 앞장서고 싶습니다. Fruits가 새롭게 캠퍼스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캠퍼스

Fruits는 학생들이 보다 더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학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학내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피교육자의 외침이 아닌 어엿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으로 받아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Fruits는 더 나아가겠습니다. 총장 선출 과정부터 생활 저변의 문제들 까지. 학교 구성원의 대표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UNIST를 위해 Fruits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학생의 입지가 좁았던 각종 학생 관련 위원회를 재정비하며 학생들의 권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학생 활동이 이루어지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캠퍼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총학생회

Fruits는 끊임없이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학내에 반영되는 학내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한 분야에서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Fruits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우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예로, 기존에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던 학생회 측 공지를 오프라인으로도 접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며 학우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탓에 놓치는 정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 창구, 오프라인 소통 창구, 찾아가는 학생 119를 운영하며 다양한 채널에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나아가는 Fruits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즐거움이 존재하는 캠퍼스

Fruits는 재미있는 축제부터, 소소한 즐거움이 존재하는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축제인 만큼,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된 축제. 벚꽃이 만개한 봄, 예쁘게 물든 단풍으로 가득한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아름다운 추억. 치열한 학업속에서 매일 자신과 힘겨루기를 하는 지친 학우 여러분들께 선물할 수 있는 작지만 작지 않은 힐링까지. 다양한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는 Fruits가 되겠습니다.

UNIST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사회가 그 지속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ruits도 마찬가지로 학생사회가 한 세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고민 또한 마다치 않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Fruits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호흡이 다음 세대를 위한 더 큰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불어넣어 봅시다. 모두가 함께 캠퍼스에 새로운 활력을!

**Fruits가 맺어가는 열매가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 되는 그 날까지.
함께 맺어가는 우리의 열매, Fruits**